

전남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 비상

장성·곡성서도 오리 3만여마리 살처분

함평, 담양에 이어 장성과 곡성 오리 농가에서도 저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 3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전남도내 오리농장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체 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임에도 불구, 자체 확산할 경우 오리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7일 "장성군 삼서면과 곡성군 오산면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돼 예방 차원에서 이를 농장의 씨오리와 육용 오리 등 3만2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가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담양·함평·오리 농가에서 발생했던 H7N7형으로, 인체 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이다.

장성군 삼서면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2만7000마리, 곡성군 오산면 농가에서는 사육중인 320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살처분된 오리는 담양·함평·곡성·장

성 등에서 모두 8만3580마리에 이른다.

전남도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함평·담양 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거나 이를 농장에서 체취한 분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곡성 오리 농장의 경우 담양에 씨오리를 공급했던 농가로 밝혀졌고, 장성은 함평과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 농장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또 4개 지역 오리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44개(담양 11·함평 12·곡성 15·장성 6) 농장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8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남도는 검사가 진행중인 농장의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해당 농장을 비롯한 주변 축사와 종사자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북 “개성공단 통행 차단 검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을 통해 7개항의 ‘중대조치’를 밝히면서 동·서해 군통신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양측은 2003년과 2007년 군

사당국간 회담에서 ‘동·서해 지역(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육로 통행 및 열차 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통한 남북 교류 지원’에 합의했는데, 이번 발표는 일단 개성공단 육로 통행은 열어 두되 남북 통행자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위험으로 풀이된다. 총참모부는 또 이번 통고문이 ‘혁명무력의 1차적인 대응’이라고 밝혀, 조평통·담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을 통해 7개항의 ‘중대조치’를 밝히면서 동·서해 군통신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양측은 2003년과 2007년 군

무등산에 전통문화관 짓는다

광주시 운림동 6471㎡에 163억 투입

광주시는 국악과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전통문화관 조성 기공식을 28일 오후 2시 동구 운림동 문화공사 부지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문화관은 647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국악당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36억원과 시비 117억원, 민자 10억원 등 모두 163억원이 투입된다.

국악당은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인 무송원을 이전 복원

하게 된다. 1930년에 건축된 무송원은 호남권 최초 민족은행인 호남은행을 설립한 고 현준호씨의 제각 겸 주거공간으로, 광주은행이 1997년 동구 학동 목화에식장 부지에서 회수 동면으로 이전하고 다시 복원해 무상으로 기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상설전시장과 보유자 전수시설, 체험실, 연습실을 갖춘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야외 다목적공연장 등도 들어선다.

/윤현석기자 chadol@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조례 정비

앞으로 광주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자체 조례로 공공장소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PC방 등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만 경범죄 위반으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서구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홍행기자 redplane@

나로호 발사전망대 내년 완공



광주FC 시민주 공모 논의

광주시민FC로 출신단(광주FC) 창단을 위한 시민주 공모를 앞두고 27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승기진 광주은행장(원쪽부터),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회장(광주FC 대표이사),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행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광주FC 이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등이 시민주 공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박람회 인프라 확충 ‘탄력’

국토부 마리나베이 호텔 등 4곳 지원시설 고시

여수시는 27일 “정부가 조만간 2012여수박람회지원시설로 여수시 마리나베이 호텔 등 4개 지구를 지정·고시 제도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산업과 인프라 등의 분야에 대해 지방세 50% 감면,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자자체 등에서 여러 특혜를 주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고시될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여수시 수정동 자산유원지(호텔 251실) ▲여수시 진모지구 마리나베이 호텔&리조트(호텔 201실) ▲돌산 관광·문화복합 해양타운(호텔 314실) ▲나르샤 관광호텔(45실) 등 4건이다.

여수시는 또 ▲경도 해양관광단지(호텔 140실·콘도 220실·골프장 27홀) ▲만성리 마크호텔복합단지(호텔 388실)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호텔 55실·골프장 18홀) 등 3건의

프장 18홀), 백아리조트(호텔 500실), 타임아일랜드 복합문화·관광단지(렌선 39실, 콘도 15실) 사업 등이다.

시는 이를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면 여수박람회 최대 현안이자 취약점으로 부각됐던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준공된 것은 여수시티파크 리조트가 유일한데다, 최근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도 상존해 있는 상태다.

여수시측은 “국제박람회다 보니 숙박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한 현안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로호 발사전망대 내년 완공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에 63억 투입

나로호 발사장면을 생생히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우주센터와 직선거리로 12km 가량 떨어져 있다. 애산 높이가 해발 50여m인 점을 고려하면 전망대 높이는 100m 남짓 되며, 평소에는 다도해 경관을 조망하는 관광명소로 활용된다. 발사대 주변으로 2만5000여㎡의 광장을 조성하고 조명시설과 산책로, 벤치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680여㎡에 외관은 우주선 모양으로 설계됐으며 각 층에는 홍보관, 레스토랑, 특선물 전시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남열리수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우주센터와 직선거리로 12km 가량 떨어져 있다. 애산 높이가 해발 50여m인 점을 고려하면 전망대 높이는 100m 남짓 되며, 평소에는 다도해 경관을 조망하는 관광명소로 활용된다. 발사대 주변으로 2만5000여㎡의 광장을 조성하고 조명시설과 산책로, 벤치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 전망대가 남열리수역과 인근 팔영산, 용바위 등과 함께 또 다른 관광명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와는 별도로 나로우주센터 내에 과학로켓 발사 등을 위한 로켓개발센터를 유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나로호 발사는 물론 해돋이 명소 등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명진씨 임명

민주당은 27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2급)에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원내대표 특보(2급)에는 기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됐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조례 정비

앞으로 광주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자체 조례로 공공장소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입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 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 제조 회사 가능) 시설 권리비 없음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대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 : 토지, 모텔부지, 상가 건물, 모텔, 부인텔, 매도(다수보유)

■첨단지역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회, 레스토랑(다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올공인중개사

T. (063)583-7788

핸 010-8004-5900

(전북 서원·제천·새마을 전문업소)

▶펜션건물(투자·자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이나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웃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